

어려운 때에도 동반자 위해 희생하는 의로운 '황금 개'

戊戌年

개 이야기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개띠 해다. 천간(天干)이 무(戊)이고, 지지(地支)가 술(戌)인 해로 육십갑자로 해아리면, 서른다섯 번째 해이다. 무(戊)는 천지간 지 오행에서 흙(土)과 노랑(중앙)에 속한다. 올해를 황금 개띠 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58년 개띠는 하나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바로 58년에 태어난 개띠들이다. 700여 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무려 78만여 명이 개띠일 정도다. 58년 출생한 이들을 가리켜 58년 개띠라고 부르는 데는 인구 구조와 당대 사회 그리고 개의 특징이 상호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는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최근에 개에 물리는 사고가 적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개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열두 띠 이야기'는 개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설화, 유물, 장경 등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개는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로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忠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개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필요에 의해 사육돼왔다. 특유의 불임성과 예민한 청각과 후각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 번 마음을 주면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대표 '베이비부머' 58년 개띠

주인 잘 따르는 충복의 상징

탐지견·보청견 역할도 특출

다'는 것이 개가 지닌 희생과 충성의 특성이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개는 인정이 매달라가는 오늘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는 대표적인 토종개가 여러 종이 있다. 진돗개는 귀소능력과 용맹성을 지닌 개로 자신을 길러준 사람에게 신의를 지켜 배반하지 않는 강직함이 장점이다. 또한 '삼살개'는 귀신도 얼씬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신이나 액운을 쫓아 준다는 속설이 있다. 뛰어난 순발력과 지구력을 갖춘 풍산개는 사냥용 수렵견으로 알려져 있다. 풍산개 두 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용맹하고 대담하다.

개와 인간의 관계는 고분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분벽화에는 개가 죽은 자의 영혼을 성자로 인도하거나 무덤을 지키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만큼 주인을 잘 따른다는 의미가 투영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적에서 추출된 개의 뼈나 다양한 토우는 개와 우리 민족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전통 풍속화에는 인간의 곁에 개의 모습이 곧잘 등장한다. 토종개의 사실적이면서도 순박한 모습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의 풍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개의 희극적이면서도 충직한 모습을 보여준다.

민화에서는 개의 모습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돼 있



그림=박태후 ▲조선시대 미대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 미술대전 특선 ▲저서 '죽설헌 원림(園林)-화가 박태후의 정원 일기'

다. 그것은 집귀를 물리치고 재난을 예방해 준다는 의미와 무관치 않다. 또한 호랑이를 잡는 무사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호렵도에서도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속의 개는 우리 민족이 사냥을 하면서 개를 데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설화 가운데 '오수의 개'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단순한 가족을 넘어 인간이 지닌 덕성, 이를 테면 지혜와 용기 그리고 효행을 개가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임실군 오수

면에서는 매년 4월이면 오수 의견제(義犬祭)를 열고 있다. 하나의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이 행사는 주인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한 의견의 넋을 위로하고 의로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민들은 4월마다 무료 예견 미용, 우수견 선발 대회, 개 달리기 대회, 예쁜 개 선발대회 등 행사를 개최해 세계적인 명견, 그리고 명견을 배출한 명소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일상에서 개는 어떤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을까. 첨단 과학 장비를 능가하는 탐지견과 불편한 장애인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도우미견은 인간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인식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청견의 역할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보청견은 특별히 훈련된 개로, 주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에 여러 소리 중 청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알려준다. 초인종 소리, 전화벨 소리, 자명종 소리 등을 인지하고 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소리의 근원지로 주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밖에 개고기는 대표적인 보신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엔 개고기 식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개고기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전통 보신음식으로 내려온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보신탕은 '복날 개고기를 삶아 먹고 땀을 흘리면 허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해서 붙여진 개장이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여름날 마땅히 보신을 할 음식이 없던 차에 개고기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유용한 음식이었던 셈이다. 북한에서는 '단고기'로 불릴 만큼 개고기는 소화흡수력이 뛰어나고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다. 식용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개고기와 관련한 음식 문화는 찬반대립을 떠나 지혜로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처럼 가장 친숙한 동물 가운데 하나인 개는 인간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한번 마음을 주면 결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의로운 개는 자기 익숙한 행기는 오늘날 영악한 인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知天命의 戊戌年 운세

2018, 무술년은 길상선사를 암시하는 황금 빛 개가 중앙 평원에 서서 장쾌하게 천 우신조를 부르고 있는 대국이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반등의 호기를 견인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국운 융성의 빛을 발하기 위한 여야의 협치가 큰 흐름을 이루리라. 국제 사회에서는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더욱 불안정한 기류가 형성될 전망이다.



- 36, 48년생 휘영청 밝은 달이 흑 구름을 벗겨내며, 얼굴을 내미니 사방 천지가 대낮과 같도다.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일구는 길조이다. 60, 72, 84년생 귀인 조력의 덕택으로 평소 마음먹고 있었던 포부를 펼쳐서 성공에 이르는 대길의 운로이다. 96년생 호사다마이니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과정에서 마가 까지 않도록 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다.
- 37년생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한 판의 축제를 벌이는 양태이니 즐거움과 상호 교류의 의미가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49, 61년생 온 산에 백화정발하니 아름답기 그지없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불태운다면, 화려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73, 85, 97년생 타고난 기질과 선영의 보살핌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며, 황제의 부운까지 따른다.
- 38, 50, 62년생 햇살 좋은 가을날에 풍년의 수확을 곡식 창고에 가득 쌓아가는 농부의 마음에 비유할만하다. 74, 86년생 막 솟아난 새싹을 목축에게 먹이는 것이나, 땅 속의 깊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는 아치이니 미래를 위한 투자에 힘써라. 98년생 승천하는 용이 여의주를 얻으니 복록을 천룡천희 하리라.
- 39년생 잠깐의 신고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술직·담백함과 순수·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대발하게 된다. 51, 63년생 재반 여건이나 환경이 양호하여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마음껏 기량을 과시해 볼만한 때이다. 75, 99년생 고진고래의 이지로서 처음의 고전은 오히려 약이 되어 줄 것이니 한 차원 더 높은 사고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 40년생 힘든 고초 끝에 값진 결실을 맺는다. 자기 마음속의 잡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52년생 치열한 노력에 동반된다면, 재물이 흥왕하고 집안도 태평하여 의식이 풍족하니 하는 일마다 생기가 돌 것이다. 64, 76, 88년생 너무 낡았다고 보면, 과감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듯이 정제되지 않는 국량을 보장해 줄 것이다.
- 41, 54년생 지나치면 오히려 번거롭고 복잡하여 불편함을 야기하게 됨을 알고 필요 이상의 형식에 얽매거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 65년생 만경창파에 배를 띄우니 해풍마저 순조로워 순항을 돕는다. 천지신명의 도움으로써 뜻밖의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77, 89년생 따스한 태양의 기운을 받아 초춘의 잠신한 융성을 도모하리라.
- 42, 54년생 남들의 감언이설에만 속지 않는다면, 재운이 행동하고 문서로써 특리하게 된다. 66, 78년생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에 실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입장과 분수에 맞춘이 현명하다. 90년생 산나물을 캐다가 우연히 진귀한 약초를 얻는 경행이 있따른다. 천재일우의 행운이 보이니 놓치지 말라.
- 43년생 희비를 좌우할만한 미혹이 보일 때 추상과 같은 자기 절제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수반된다면, 안락의 장이 열리리라. 55, 67년생 망설이고 있을 때 호기는 지나가는 범이니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이 행운을 불러들임을 알자. 79, 91년생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 한다면, 성공은 따 놓은 당상이다.
- 44, 56, 68년생 맑고 깊은 물에 고깃배를 띄우니 머지않아 만선이 되어 돌아가리라. 때와 곳이 길하니 쉽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80년생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 성장의 극치를 이루는 형상이니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은연중의 기쁨이 크겠다. 92년생 우물만 파 놓은다면, 자연스럽게 물은 샘솟을 것이니 한 때의 수고로움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45, 57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도모해 봄직한 운로이니, 자기 것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논의하여 선택과 집중에 힘써라. 69년생 되로 뿌려서 말로 수확하니 잠으로 값진 일이다. 81, 93년생 구성원이나 주변인 간에 조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 해 동안 운택함과 복덕이 끊이지 않는다.
- 46, 58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인묵과 식견으로 임한다면, 무탈하리라. 70, 82년생 번개도 치고 비가 내릴 수도 있으나 날씨가 갠 다음에는 반드시 오색영롱한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4년생 재화가 먼 곳에서 부러니 길 떠나면, 자신의 것이 된다. 울타리 안에 접어든 사냥감이니 임하면 곧 성취하리라.
- 47년생 정도를 견뎌 개척 정신으로 일관한다면, 못 사람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된다. 59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소박하게 임한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71, 83, 95년생 아득한 지평선 위로 찬란한 태양 빛이 온 누리에 비치니 따스한 온기가 특별한 기쁨과 영광을 표상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영광군약사회

좋은 약, 바른 투약으로 건강사회를 지켜가겠습니다.

2018 무술년, 희망찬 새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영광군약사회